

도움이 되는 사람

A Man Who Helps

요한복음 6:4-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8월 4일 설교

⁴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⁵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⁶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⁷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⁸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⁹“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¹⁰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¹¹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언제나 그늘에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하고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복음서 네 권 모두가 네 사람이 열둘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시스티나 경당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 시리즈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는 이 네 사람만 나옵니다. 가장 먼저 부름받기도 했지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그랬겠지요. 핵심 사인방 아니면 측근 사인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넷이 셋으로 줄어듭니다. 누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예, 안드레가 빠졌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안 빠지고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안 보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인지 형인지 잘 모르지만 동생이라 합시다. 이 안드레는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보이는데도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항상 등장하는 세 사람에게 별로 뒤지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구약의 핵심 인물이지만 다윗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의 그늘에 가려 사라진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은 반면 요나단은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버리셨는데 왜 믿었습니까? 나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었고 메시아를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시다.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믿음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주시는 하나님이 좋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왜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고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안드레한테서도 비슷한 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인도함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면 두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바닷가에서 만나기 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했을 때 그 말을 또 믿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가 안드레였으니 세례요한의 제자 가운데서도 핵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이 분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곁에 있던 두 제자가 바로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스승이 바뀌었지요? 이상하게 볼 것 없습니다. 요한은 진작부터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라면 이 분이 메시아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메시아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요한을 따랐던 것도 그 분이 메시아의 길을 알려 줄 분이라 따른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 당연히 메시아에게 가야지요.

거처가 어디인지 예수께 여쭙었더니 같이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승 세례요한이 이미 증언한 데다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이 분이 메시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부터 찾아갔습니다. 메시지를 만났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형 베드로를 메시야께 인도한 일입니다. 나만 믿고 할렐루야 하고 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대표 제자가 될 겁니다. 제가 인도했지만 저보다 큰 일을 할 겁니다. 안드레는 그저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안드레를 인도함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한 다음날 예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때도 안드레가 다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같은 동네 벳새다 사람입니다. 멀리 유대 땅에서 갈릴리 사람, 한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소개하면서 “안드레 및 베드로”하고 한 동네 사람이라 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언제나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데 빌립을 부르신 이 한 곳에서만 안드레가 먼저입니다.

안드레의 주특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보조 역할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다음 저는 뒤로 밀렸지요. 이번에는 빌립이 주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다음 그리스도사람 몇이 예수님을 뵈고 싶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왔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입성을 하신 주님을 보고 이 분이 메시야라는 걸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 가운데 빌립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 빌립일까? 이름이 그리스식이라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던 시절에 이름이 빌립이니 그리스말도 좀 했겠지요. 그런데 빌립이 바로 예수께 데리고 가지 않고 안드레한테 먼저 갑니다.

왜 안드레였을까? 빌립이 주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도 안드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드레를 의지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널 찾아 왔으니 네가 해라” 하지 않고 빌립하고 같이 주님께 가옵니다. 안드레다운 일이지요.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또 한 번의 도움

몇 번 안 나오지만 언제나 돕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어른만 오천 명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장소는 벳새다 언덕입니다 (눅 9:10; 또는 건너편 막 6:45).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사람이 다 벳새다 사람입니다. 야고보 요한도 아마 가까이 살았겠지요. 그 언덕에서 수만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직접 먹이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시험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약 1:13).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빠지게 하시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겁니다.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려는 거지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떡을 조금씩만 준다면 이백 데나리온은 훨씬 더 들겠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 “몇 만 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겠지요. 아주 평범한 대답입니다. 산수도 잘 했습니다. 믿음 없는 대답이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야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 때는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제자들도 먹을 게 모자라면 마을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사실 그런 방법도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 해도 수만 명 먹을 음식이 당장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때 누가 끼어듭니다. 안드레지요. “아이 하나가 보리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왜 끼어들었을까요? 빌립을 도우려고 일말의 가능성을 제시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빌립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갖고 누구한테 갈라 붙이겠습니까?”

안드레와 성찬

안드레가 의도한 건 저는 모르지만 일단은 빌립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빌립을 전도하는 계기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이런 안드레였기 때문에 빌립이 늘 의지했겠지요. 그런데 안드레의 마지막 한 마디에 저도 생각지 못한

뜻이 담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갈라 붙이겠습니까?”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배고픈 줄 모르고 잘 가다가 갑자기 고기 생각이 났습니다. 만나는 곡식하고 비슷했는데 그것만 먹다 보니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과 고기와 각종 양념이 그리웠습니다 (민 11:5).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이 꼴 안 보게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민 11:10-15).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주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날마다 먹어 아예 질리게 만들어 주마” (민 11:16-21).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지금 백성이 육십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만 먹이시려면 지금 있는 소하고 양을 다 잡아도 안 됩니다. 바다의 생선을 모조리 잡아도 아마 안 될 걸요” (민 11:21-22)? 여호와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민 11:23)?

빌립과 안드레의 말에 주님은 아무 대꾸도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을 앉히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원대로” 주셨습니다. 달라 하는 만큼 다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런 다음 얼마나 남았습니까? 부스러기만 열두 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백 데나리온으로도 안 되겠는데요.” “조금 있는데 이걸 어디 갈라 붙이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주님은 말없이, 행동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유월절과 생명의 떡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이 유월절이고 이 날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생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맞추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또 다른 유월절에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으로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살리려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신 그런 능력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다음날 예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꾸중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가 불러 찾는다는 꾸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다가 배부리 먹었다. 조금밖에 안 되는 음식으로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이런 분이라면 먹고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내 영원의 운명이 달린 그런 숙제부터 해결해 달라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어야 된다 하십니다. 믿으면 된다 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는 거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열두 제자를 비롯한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내가 고대한 메시아는 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고, 지겹다 하면 고기도 주는 분인데, 아프면 낫게 해 주고, 생존경쟁에서 늘 이기게 해 주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 주는 그런 메시아인데, 이 분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나를 믿으면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런 말씀만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아프면 낫게 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라면 우리는 떡 먹고 배불러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표적은 못 보고 그저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때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멋있는 대답은 언제나 누구 역할입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가장 멋진 고백, 교과서에 나오는 대답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름을 비추었던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서는 일에는 별로 관심

이 없습니다. 특히 안드레는 더 그렇습니다. 넷 가운데 저 혼자 밀렸습니다. 야고보랑 요한은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지 베드로하고 다투기까지 했지만 안드레는 그 때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베드로처럼 앞장서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따라가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처럼 챙겨주는 사람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 안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 그렇게 챙겨주는 일입니다. 기록 안 된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배려,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면서 이미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자마자 찾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걸 알자마자 형제 베드로도 인도하고 동네 사람 빌립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기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죽음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그 분을 구주로 믿었기에 안드레도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또 한 번 성찬을 갖습니다. 우리 관심이 떡 먹는 일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걸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안드레가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